

## 14. 建設景氣 動向 및 展望

資料提供: 國土開發研究院

국토개발연구원은 지난 1/4분기의 건설투자가 전년동분기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4분기에는 그 증가율이 6.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건설경기가 '95년 상반기부터 서서히 활황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부문별로는 지방의 미분양아파트 증가와 중소 주택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단기적인 주거용 건설투자의 부진이 우려되며, 경기진정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공공 공사발주의 연기가 시행될 경우 토목용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 현재 10만호를 상회하는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증가, 주택가격의 안정,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정책 등으로 인해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거시경기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건설투자수요는 1/4분기에 전년동분기 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2/4분기에도 0.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거시경기의 호황으로 인해 공업용건설투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1/4분기에 전년동분기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4분기에는 7.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공공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94년 4/4분기의 공공토목부문 수주액이 전년동분기 대비 43.7% 증가하였으며, '95년 1/4분기에도 39.0% 증가하였음. 같은 기간 민간부문의 토목건설수주액도 무려 103%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95년 1/4분기의 토목투자는 전년동분기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4분기에는 1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종합적으로 볼때 '95년 상반기의 건설투자는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거시경기가

과열조짐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건설경기는 비교적 안정된 국면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단, 단기적인 주택부문의 투자부진은 다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시경기 진정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공사의 일정을 늦추는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이것이 건설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건설투자 동향 및 전망

단위:십억원(=1990년 불변가격), (%)

구 분		주거용	비주거용	토목용	총건설투자
94	1/4 (%)	4,189 (7.7)	3,340 (16.1)	2,660 (-1.5)	10,189 (7.6)
	2/4 (%)	4,444 (-1.9)	3,396 (2.0)	5,024 (6.1)	12,864 (2.2)
	상반기	8,633 (2.6)	6,736 (8.5)	7,684 (3.4)	23,053 (4.5)
95	1/4 (%)	4,086 (-2.4)	3,598 (7.7)	2,844 (6.9)	10,528 (3.3)
	2/4 (%)	4,413 (-0.7)	3,636 (7.1)	5,645 (12.4)	13,694 (6.5)
	상반기	8,500 (-1.5)	7,234 (7.4)	8,489 (10.5)	24,223 (5.1)

### 주택가격 동향 및 전망

(1990.12=100)

	94년 3분기	94년 4분기	95년 1분기	95년 2분기
전도시	91.6	91.7	91.7	91.7
(아파트)	91.1	91.5	91.6	91.7
서울	89.8	90.0	90.1	90.1
(아파트)	89.5	89.9	90.1	90.2

주:95년 1/4분기 및 95년 2/4분기는 전망치